

# 조선인 여공들의 눈물겨운 삶 증언, 다큐로 만난다

영화는 일본 이쿠노구에서 '호르몬(ホルモン)'을 판매하는 점포를 비추며 시작된다. 오사카 사투리로 '쓰레기'를 뜻하는 호르몬은 육류 중에서도 곱창이나 대창 등 내장 부위를 가리킨다. 오늘날 일본에서 인기가 높지만 쓰레기라 부르게 된 데에는 아픈 사연이 있다.

'호르몬'은 일제강점기 일본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들의 눈물겨운 삶을 상징한다. 당시 일본인들은 돼지 내장을 먹지 않고 버렸는데 노역에 시달리던 조선인 방직공들은 이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다. 10대에 불과했던 소녀들은 '조선징 돼지'라는 놀림과 핍박을 견뎌야 했다.

지난 7일 개봉한 이원식 감독의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는 일제강점기 일본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여공 22명의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멀티플렉스 및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등에서 개봉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귀향', '눈길' 등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거나 강제징용을 다룬 '군함도' 같은 작품은 있었으나, 방직 여공 문제를 모티브 삼은 영화는 만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조선인 방직 여공 문제'는 청소년 노동, 폭행, 성폭력, 반강제적 매매혼 등과 맞물려 있다. 1910~30년대 조선인 소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지만 정작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살인적 노동과 폭력이었다.

영화는 방직공장의 실상을 전하는 '프리젠테' 역을 맡은 강하나 배우가 여공으로 일했던 이들의 구

이원식 감독 '조선인 여공의 노래' 광복절 앞두고 전국 극장가 개봉 광주극장·광주독립영화관도 상영

술·채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강 씨는 먼저 1920~30년대 키시와다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증언자의 기억을 마주한다.

성순영 씨에 따르면 "15~16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녀들이 여공으로 모집됐다. 일본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자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조선에서 살 길이 막막했던 이들이 타향으로 떠났다"고 한다.

일본의 역사학자인 히구치 요이치 씨와 함께 테라다 방직공장의 모습을 살펴보는 장면도 있다. 을 씨년스러운 공장 풍경을 보니 여공들의 고통이 짐작됐다. 기록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은 170명에 달한다.

당시 막내였던 신남숙(여·99)의 구술도 인상적이다. 그는 부산에서부터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항으로 떠나던 날의 슬픔을 생생하게 풀어낸다. 신 씨는 1936~41년까지 5년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줄을 참던 기억도 들려줬다. 어찌다가 실수로 '실'이라도 끊는 날이면 폭행도 이어졌다고 한다.

"조선인 여공이 사람이라면 나비나 잠자리도 새라 불러야겠지"(방직 공장에 적혀있는 낙서 중) 일제의 만행은 여공들이 다쳤을 때에도 계속됐



방직공장 여공으로 일했던 신남숙(99)씨 증언 장면.

다. 1920~30년대 키시와다 공장에서 일한 정이순 씨는 졸다가 팔이 기계 안으로 말려들었던 경험을 풀어 놓으며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부상이었지만 일본인 감시자들은 '네가 조니까 다치는 거야 라며 폭언했다'고 말했다.

여공들은 함석지붕에 다다미 대신 거적매기를 칸 바닥에서 공동 생활했으며 좁은 테니스장 크기의 부지에 200여 명이 모여 살았다. 이 같은 장면을 보여줄 때에는 오사카 신문이나 공장 사진 등 사료들을 함께 제시해 사실감을 더했다.



소녀들은 일본인 감시자에게 구타와 폭언 등을 당하며 일을 해야 했다. 과로에 즐기고 있는 여공 모습.

방직 공장 입구에는 감시병이 있어서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여공 대부분이 한글을 몰랐기에 가족과 소통할 수도 없었다.

아울러 영화는 사본오열된 우리 민족의 고통도 제시한다. 여공들은 일본인 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파생한 단체 '상애회'를 통해서도 고통을 겪는다.

당초 상애회는 직업알선, 해외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됐지만 일본 경찰, 행정기관과 결탁해 여공들의 노동 쟁의를 막았다.

이런 상황 속에도 여공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글 야학을 개설해 조선어를 배웠으며 나아가 어린 동생들을 챙겨주기도 했다. 끝까지 살아남아 과거를 증언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강인한 생명력 그 자체다.

"자 우리 여공들이여 오늘 일과를 말해보자/ 밤중에 한밤중 깊은 잠 들때 잠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눈 뜨고(-)"

'조선인 여공의 노래'와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린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해 더 현음재가 선보인 '마한더금' 공연 모습. <더 현음재 제공>

## 가야금 선율로 광복 의미 기리다

(사)더 현음재 '달 그득 아리랑' 15일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다가오는 광복 79주년을 기념하고 가야금 산조의 뜻을 알리는 공연이 펼쳐진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문화 예술'을 통해 기리고, 영암의 전통문화예술 가치를 전하는 데 초점을 둔 자리다.

(사)더 현음재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영암지부·단장 정선숙)가 '레퍼토리1-달 그득 아리랑'을 오는 15일 오후 5시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진행한다.

더 현음재 단원 중 25현 가야금주자 등은 '우리 가를 부르께 하라'라는 주제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전국 최초로 동맹 휴학에 들어갔던 영암보통학교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창작동요의 효시인 '반달', '오빠생각', '홀로 아리랑' 등을 연주한다.

이어지는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는 조한, 최지혜, 김효빈 등의 선율이 실린다. 김죽파류는 뛰어난 형식미와 강인한 한의 성정이 담겨 있

으며, 남성적 중후함을 특징으로 하는 산조로 알려졌다.

'인형극 달각시 설화'도 레퍼토리에 있다. 월출산의 탈밤과 관련된 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작품은 '칠득이(박재희 분)'라는 어수룩한 총각이 '달각시(최지아)'를 맞이했다가 아내를 잃고, 풀벌레로 변해 슬픈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이다.

사물판굿 자타공인이 출연하는 'K-연희 한마당'도 전통의 흥과 신명을 더한다. 이들은 판굿, 사물놀이를 비롯해 '버나놀이', '자자놀이' 등을 통해 연희 공연의 즐거움을 전한다.

끝으로 채동선 실내악단이 부르는 전통음악 메들리로 공연은 막을 내린다. '대한이 살았다', '아름다운 나라' 등 노래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현음재 정세영 대표는 "영암은 가야금산조를 창시한 국악 본향이기에 가야금 위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며 "지역의 문화, 역사를 담은 이번 공연을 통해 영암 전통문화유산의 가치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관람료 1000원. /최류빈 기자 rubi@

## 공간과 사이에 대한 철학적 사유

윤세영 '생성지점-이 곳과 저 곳'전, 18일까지 예술공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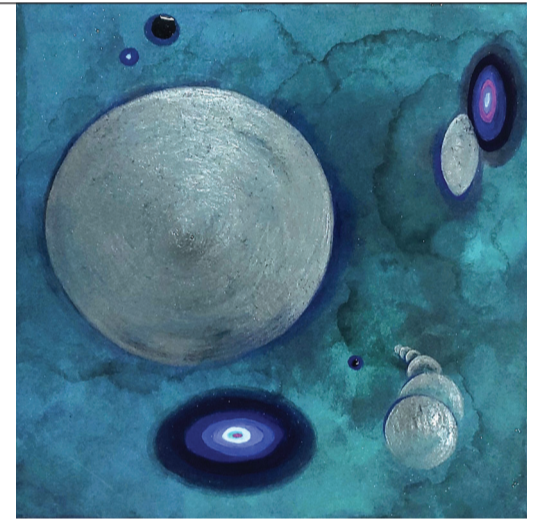
인간은 지구라는 공간에 존재한다. 인간과 공간이라는 어휘의 공통점은 '간(間)'이라는 글자에 '사이'를 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사이'를 매개로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다. 모든 관계는 '사이'라는 틈에서 받아되고 피어난다.

'생성지점'이라고 명명된 윤세영 작가의 작품들은 공간과 사이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투영돼 있다. 무한대로 증식되어 가는 일정한 패턴은 끊임없는 생성을 기호화한다.

예술공간 집에서 오는 18일까지 열리고 있는 윤세영 작가의 '생성지점-이 곳과 저 곳'전. 새롭게 생성되는 모든 것은 리듬과 패턴이라는 유사성을 지닌다. 동일한 반복은 일정한 파장을 만들고 파장은 거대한 구심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윤 작가가 사용하는 미세한 돌가루인 '석체'는 오랜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발현하는 재료다. 단기간에는 원하는 색채를 얻을 수 없지만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의도했던 색이 '생성'된다. 이번 전시 '생성지점'을 좀더 세세하면서도 깊이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생성지점'은 얼핏 세포분열을 반복하는 생명체의 미세한 생명활동 현상으로 보인다. 분열과 반복, 일정한 패턴의 양상은 생명체 사이에 드리워진 공간, 즉 사이가 있어 가능할 것이다. 중력 사이를 떠도는 일정한 원들은 움직임이라는 움직임을 매개로 무한 증식한다. 작은 원 내부의 점은 DNA가 원초적으로 지니고 있는 핵을 이미지화한 것 같다.



'생성지점'

윤세영 작가는 "중력과 리듬에 대한 새로운 생성 지점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무거운 음들은 오히려 가볍게 통통거리고 가벼운 음들은 오히려 무겁게 통통거리다"고 작품 의미를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프랑스 작곡가 트럼펫 곡 만나는 자리

트럼페터 김정태 'From France', 17일 광주예술의전당

제33회 프랑스 올림픽이 지난 11일 공식 폐막했다. 인류 평화와 공생의 정신을 담은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종합 8위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세계인이 '문화'로 어우러지는 예술 축전이었다.

프랑스 올림픽을 기념하는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트럼페터 김정태가 'From France'를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유진 보자, 장 위보, 프랑시스 토메 등 19~20세기 프랑스 작곡가들의 트럼펫 곡들을 만나는 자리다.

프랑시스 토메의 '판타지'로 시작하는 공연은 유진 보자의 '카프리스'로 이어진다. '카프리스'는 트럼펫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음계와 16분음표

의 넘치는 에너지, 렌도(느리게) 악절을 통한 아름다운 표현력이 가미된 곡이다.

프랑스 전쟁 시기인 1943년 작곡된 장 위보의 '소나타'도 레퍼토리에 있다. '반음계 트럼펫을 위한 소나타'로 알려진 곡이며 저명한 트럼펫 연주자 로저 델모트에게 헌정된 휴보의 유일한 트럼펫 작품이다. 스페인 춤의 일종인 사라반드로 시작해 2악장의 유머러스한 인터미드, 마지막 악장(Spirital)의 불루스한 리듬이 특징적이다.

20세기 중후반 활동했던 요셉 투린의 1988년 발표곡 '인트라다'도 레퍼토리에 있다. 뉴욕 필하모닉의 수석 트럼펫 연주자 필립 스미스에게 선사한 작품. 프랑스에서 가장 다작한 작곡가 유진 보자의 '뒤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진행했던 '김정태 독주회' 공연 장면. <트럼페터 김정태 제공>

스틱'도 연주된다. 다양한 역동성 대신에 소박한 민속 특성, 미니멀한 연주로 단순함의 미학을 선사하는 곡이다. 이 밖에도 프랑시스 폴랑크의 '호른, 트럼펫, 트롬본을 위한 소나타'가 울려 퍼진다.

트럼페터 김정태는 "경쾌한 멜로디 라인인 패턴, 단조 선율이나 민요풍 등 이채로운 특성을 지닌 악곡들을 트럼펫으로 연주한다"고 했다. 전석 1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